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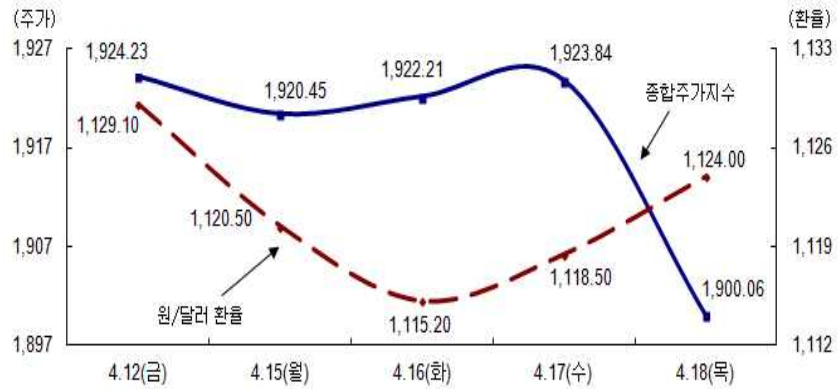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과소투자 고착화되고 있다
 - 설비투자의 장기 침체 원인과 해소 방안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12~4.18)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1 |
| □ 과소투자 고착화되고 있다 | 1 |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2 |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최 성 근 선임 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Executive Summary

□ 과소투자 고착화되고 있다 - 설비투자의 장기 침체 원인과 해소 방안

■ 최근 설비투자 급락

최근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과거에 비해 크게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2003년 카드사태(13.3%p)시기와 2009년 금융위기(36.5%p) 시기와 비교할 때 최근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이전 고점대비 약 39%p나 급락하여 2000년대 들어 최대의 감소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설비투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악화되어 성장률대비 과소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장기균형식을 통한 추정결과 2012년 GDP와 설비투자의 장기균형대비 과소투자액은 약 19조 905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설비투자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 장기 과소투자의 배경

첫째, 세계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세계 교역이 위축됨에 따라 대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1년 3.9%에서 2012년 3.2%로 하락했고 올해도 경기 둔화세는 지속되고 있다. 둘째, 소비 침체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하락하고 있다. 셋째, 설비투자 비중이 가장 큰 전기 및 전자기기와 석유 및 화학제품 분야 등 주도 산업의 경기 부진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가 전체 설비투자 침체를 주도하고 있다. 넷째, 국내 투자여건 악화 및 대내외 경기 불안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위기관리 경영이 확대되었다. 다섯째,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 파급 영향과 해소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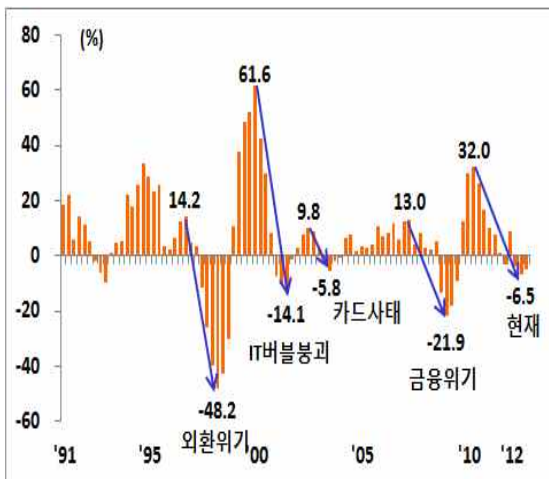
(파급 영향) 첫째, 고용과 성장여력이 감소한다. 설비투자의 침체로 기업의 고용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성장 여력도 감소하게 된다. 둘째, 경기회복력이 약화된다. 설비투자 침체가 지속되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고, 고용 및 소득 여건이 악화되어 경제 회복 속도가 지연된다. 셋째,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2001년부터 설비투자가 장기균형을 하회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90년대 6.5%에서 2012년 현재 3%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해소 방안) 2013년에 들어서도 설비투자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저성장 기조 고착 및 경기회복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지원 대책을 강화하여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취약한 서비스 산업 및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일관된 경제정책을 유지하여 기업의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위축된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한다.

1. 최근 설비투자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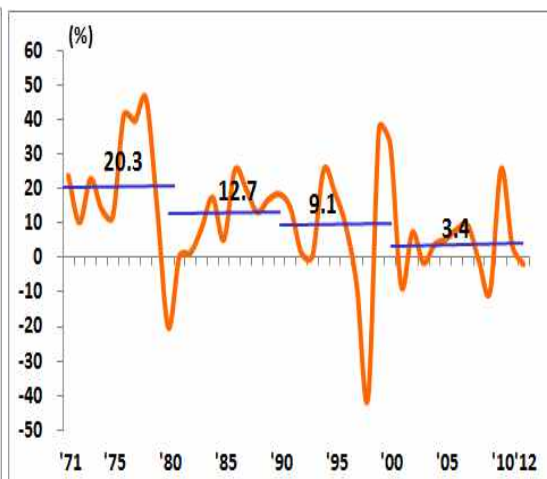
- (설비투자 침체 현황) 최근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과거에 비해 크게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가장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락추세도 장기화되고 있음
 - 국내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2003년 카드사태(15.3%p)시기와 2009년 금융위기(34.9%p) 시기와 비교할 때 최근의 설비투자증가율은 이전 고점대비 약 38.5%p 급락¹⁾
 - 2010년 2/4분기 이후 2012년 1/4분기를 제외하고 최근 설비투자증가율은 8분기 연속 하락하여 2012년 4/4분기 소폭 반등했지만 -5.1%에 불과
 - 설비투자는 장기 추세적으로 볼 때에도 과거보다 크게 침체된 양상
 - 1971~80년(20.3%), 1981~90년(12.7%), 1991~2000년(9.1%)과 비교할 때 2001~12년의 평균 설비투자증가율은 과거보다 크게 하락한 3.4%에 불과
 -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 등 경제충격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급락한 시기보다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은 크게 침체된 양상

<분기별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변화 1991~2012>



자료: 통계청
 주: 위기시점별로 이전 고점대비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을 비교. 설비투자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연도별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197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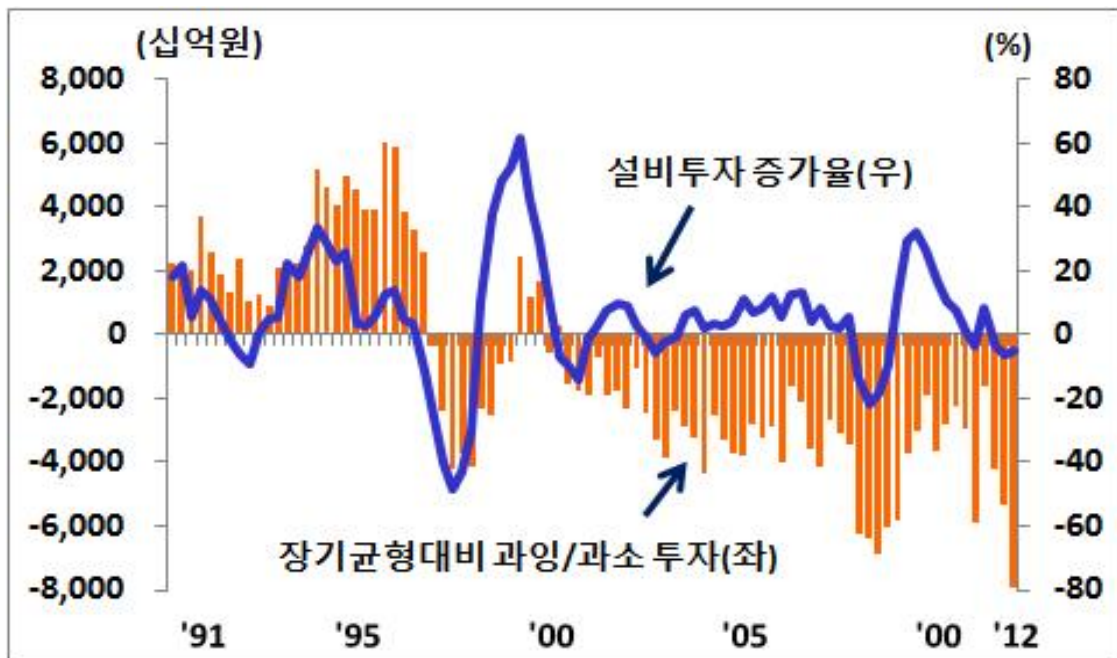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71~'80, '81~'90, '91~'00, '01~'12 기간 설비투자 증가율 평균치임.

1) 이전 고점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은 비록 외환위기시(↓60.4%p)나 IT버블 붕괴시(↓75.7%p)보다는 작지만 2003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어 설비투자의 침체가 과거 경제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임을 시사.

- (과소투자 장기추세 분석)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설비투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성장률 대비 과소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GDP와 설비투자의 장기균형식을 통한 추정 결과 2012년 설비투자의 장기 균형대비 과소투자액은 약 19조 905억원에 달함
 - 이는 과거 설비투자와 GDP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추정된 설비투자의 균형값보다 2012년 현재 설비투자는 19조 905억원 투자가 덜 이뤄졌음을 의미
 - 2009년 금융위기의 경우 과소투자액은 25조 1,153억원이며, 1998년 외환위기 시 과소투자액은 14조 4,333억원임
 - 2012년 현재 과소투자액 19조 905억원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시의 과소투자액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이는 현재 투자 침체의 정도가 과거 경제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줌

< 장기균형대비 설비투자 과잉/과소 투자 추이 1991~2012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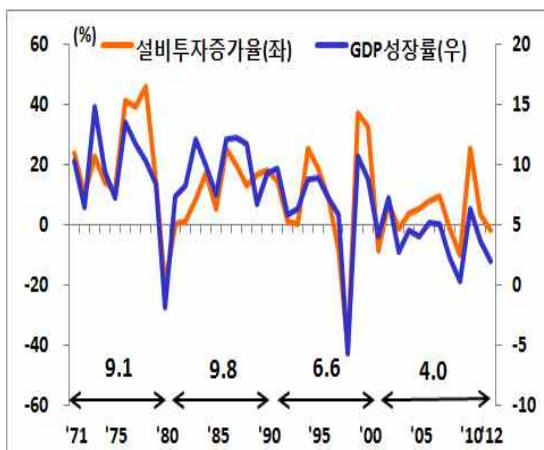
주: 1) 설비투자와 GDP의 장기균형식 추정을 위해 $\log \text{설비투자}_t = \alpha + \beta \cdot \log \text{GDP}_t + \varepsilon_t$ 를 회귀 분석. $\beta=1.27(0.019)$, $\alpha=-5.52(0.213)$,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 α 와 β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log \text{설비투자}$ 와 $\log \text{GDP}$ 의 공적분관계를 통해 장기 균형식 추정, ε_t 에 대한 단위근 가설을 기각, 분기데이터 이용).

2) $\varepsilon_t = \log \text{설비투자}_t + 5.52 - 1.27 \cdot \log \text{GDP}_t$ 를 이용하여, 장기균형값을 추정하고 장기 균형대비 과잉/과소 투자액을 계산.

○ (장기 저성장 고착화 우려) 설비투자 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내경제의 장기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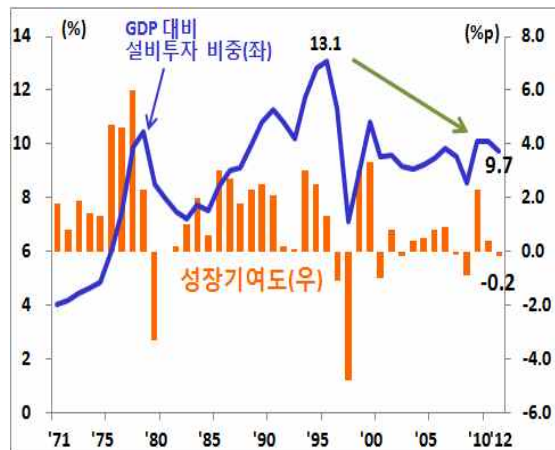
- 장기적으로 설비투자가 침체됨에 따라 국내 GDP 성장률도 장기 하락추세를 나타냄
 - 설비투자가 10~20%를 나타냈던 70년대와 80년대 GDP 성장률은 9%대를 기록했으나, 2000년대 3%대로 설비투자가 하락하면서 GDP 성장률도 4% 수준으로 하락
 - 최근 설비투자가 부진했던 5년간(2008~2012년) GDP 성장률은 2.9%에 불과하여 설비투자 하락에 따른 장기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
- 설비투자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하락하고 GDP대비 비중도 하락 추세
 - 설비투자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70년대 평균 2.2%p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1~12년 평균 0.3%p로 급락
 - 설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13.1%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2012년 9.7%를 나타냄
 - 설비투자의 침체에 따른 GDP 성장기여도의 하락과 설비투자의 비중의 감소 추세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하락세가 지속될 우려

<연도별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 증가율 2002~2012>



자료: 한국은행.

<연도별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 및 비중 추이 1971~2012>



자료: 한국은행.

주: '71~'80, '81~'90, '91~'00, '01~'12 기간 설비투자 증가율 평균치임.

2. 장기 과소투자의 배경

1) 수요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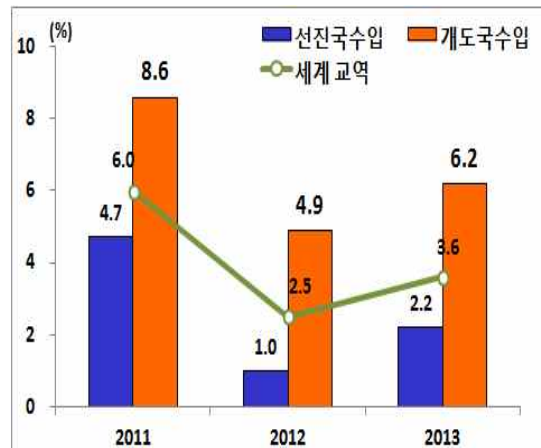
○ (세계 경제 둔화 지속) 작년부터 이어진 세계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세계 교역의 위축이 설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짐

- 세계 성장률 둔화 지속 : 2013년에도 GDP 성장률은 둔화세가 지속
 -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1년 3.9%에서 2012년 3.2%로 하락했고 2013년에는 약간 반등하겠으나 둔화세는 지속될 전망
 - IMF는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부터 3.9%(12.7) → 3.6%(12.10)→3.5%(13.1)→3.3%(13.4)로 연속 하향 조정
- 수입 증가율 둔화 : 세계 경기부진의 심화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입증가율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산업 설비투자 부진으로 연결
 - 선진국의 수입증가율은 2011년 4.7%에서 2012년 1.0%로 급감했고, 2013년에도 2.2%로 부진세가 이어질 전망
 - 개도국의 수입증가율도 2011년 8.6%에서 2012년 4.9%로 감소. 2013년에도 6.2%로 증가율은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수출증가율은 2011년 19.0%에서 2012년 -1.3%로 급락했고, 2013년 세계 경제 둔화 지속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수출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

<세계 GDP 성장률 추이와 전망 2011~2013>

| 구분 | 2011 | 2012 | 2013 |
|-------|------|------|------|
| 세계 | 4.0 | 3.2 | 3.3 |
| 선진국 | 1.6 | 1.2 | 1.2 |
| 미국 | 1.8 | 2.2 | 1.9 |
| Euro | 1.4 | -0.6 | -0.3 |
| 일본 | -0.6 | 2.0 | 1.6 |
| 신흥개도국 | 6.4 | 5.1 | 5.3 |
| 중국 | 9.3 | 7.8 | 8.0 |
| 브라질 | 2.7 | 0.9 | 3.0 |
| 인도 | 7.7 | 4.0 | 5.7 |

<세계교역량 및 지역별 수입증가율 추이와 전망 2011~201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3

○ (내수 경기 부진) 소비 침체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설비투자조정압력이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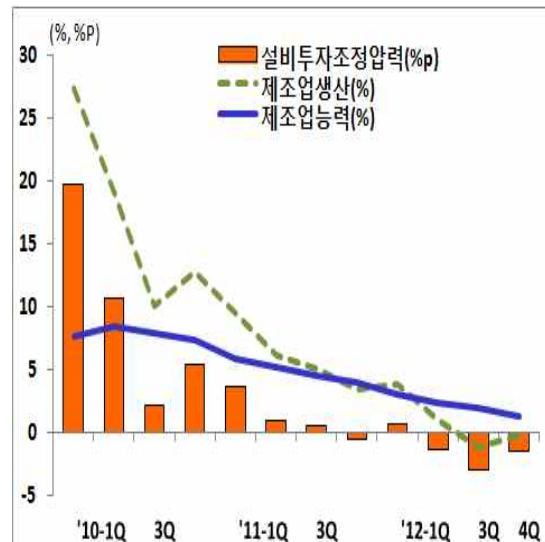
-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황부담 증가, 미래불안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 감소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1년 2.4%에서 2012년 1.7%로 큰 폭의 하락세
 - 소매판매액은 2011년 4.3%에서 2012년 1.8%로 비내구재를 제외한 지수가 상승세로 반등했지만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능력 증가율을 하회함에 따라 설비투자조정압력이 감소세를 지속
 - 2009년 설비투자조정압력이 -3.6%p를 기록한 이후 플러스 증가율로 돌아섰으나, 2012년 2/4분기에 -1.3%p를 기록하며 다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3/4분기 -3.0%, 4/4분기 -1.5%로 감소세 지속
 -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2012년 3/4분기 0.3%, 4/4분기 1.2%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 능력증가율은 3.2%, 2.0%로 추가적인 설비투자에 대한 필요가 부족한 상황

<민간소비와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추이 2011~12>

| 구분 | 2011년 | | | | | 2012년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민간 소비 | 3.2 | 3.1 | 2.1 | 1.2 | 2.4 | 1.3 | 1.0 | 1.7 | 2.7 | 1.7 |
| 소매 판매 | 5.3 | 6.2 | 4.0 | 2.6 | 4.5 | 2.8 | 1.4 | 2.6 | 2.5 | 2.3 |
| 내구재 | 11.5 | 16.9 | 10.3 | 4.4 | 10.6 | 4.4 | 2.9 | 6.6 | 7.5 | 5.3 |
| 준내구재 | 5.1 | 5.2 | 3.6 | 1.2 | 3.7 | -0.3 | -1.0 | -3.5 | 0.3 | -1.1 |
| 비내구재 | 2.7 | 2.0 | 1.5 | 2.4 | 2.1 | 3.3 | 1.6 | 3.0 | 1.0 | 2.3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 분기별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2010~2012>



자료: 통계청
주: 설비투자조정압력(%p) = 제조업생산증가율(%) -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

2) 산업 구조 측면

○ (설비투자 주도산업 부진) 설비투자는 일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설비투자 주도산업의 경기 부진은 전체 설비투자 악화를 초래

-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과 석유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 설비투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이러한 설비투자 주도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전체 설비투자 역시 감소세
-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 설비투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9.7%에서 2009년 32.8%로 다소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일부 산업에 편중
- 산업별 설비투자조정압력을 살펴보면,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과 석유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2012년에 각각 -3.4%p, -0.6%p로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의 감소세를 주도

< 기종별 설비투자 비중 및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

| | 설비투자 비중 (%) | | | | | 설비투자조정압력 (%p)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0 | 2011 | 2012 |
|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 2.9 | 2.2 | 2.7 | 2.1 | 2.4 | 2.6 | 0.7 | 2.6 |
| 섬유, 가죽제품 제조업 | 1.8 | 1.5 | 2.0 | 1.5 | 1.7 | 3.1 | -0.9 | 2.0 |
| 목재, 종이, 인쇄, 복제업 | 1.7 | 1.5 | 1.4 | 1.2 | 0.9 | 12.4 | -2.1 | -1.5 |
| 석유 및 석탄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4.4 | 16.1 | 18.2 | 14.4 | 15.1 | 3.6 | -0.1 | -0.6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4.0 | 4.1 | 3.6 | 3.3 | 3.7 | 3.5 | -0.3 | -7.0 |
| 금속제품 제조업 | 11.7 | 11.9 | 15.6 | 9.5 | 8.2 | 9.1 | 2.9 | 2.8 |
| 일반기계 제조업 | 6.8 | 7.0 | 6.3 | 5.0 | 5.7 | 28.7 | 1.5 | -6.3 |
|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 41.7 | 39.7 | 32.8 | 50.7 | 47.2 | 4.7 | -4.0 | -3.4 |
| 정밀기기 제조업 | 1.3 | 1.4 | 1.2 | 1.1 | 1.2 | 7.7 | -0.8 | -0.2 |
| 운송장비 제조업 | 13.2 | 14.0 | 15.1 | 11.4 | 14.0 | 1.4 | 6.5 | 0.6 |
|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 0.4 | 0.3 | 0.3 | 0.2 | 0.2 | 9.0 | -1.6 | -5.2 |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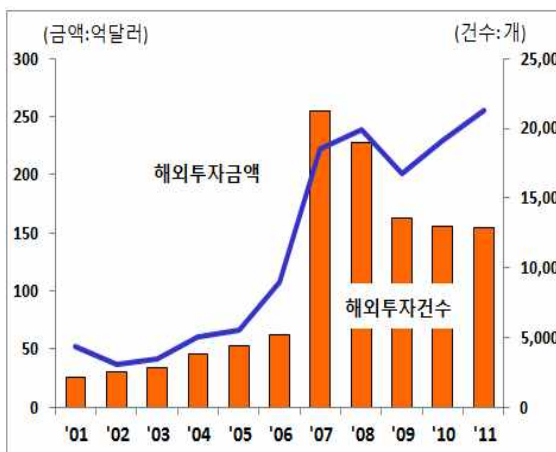
- 주: 1)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에서 각 산업의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2) 설비투자조정압력(%p) = 제조업생산증가율(%) -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
- 3)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산업분류가 서로 상이하어 한국은행 산업별 기준으로 통계청의 생산 능력증가율과 생산증가율을 산출.

3) 기업 경영 측면

○ (생산기반의 세계화와 위기관리 경영) 국내 투자 여건 악화에 따른 해외 투자 확대와 국내외 시장 불안에 대한 위기관리 경영이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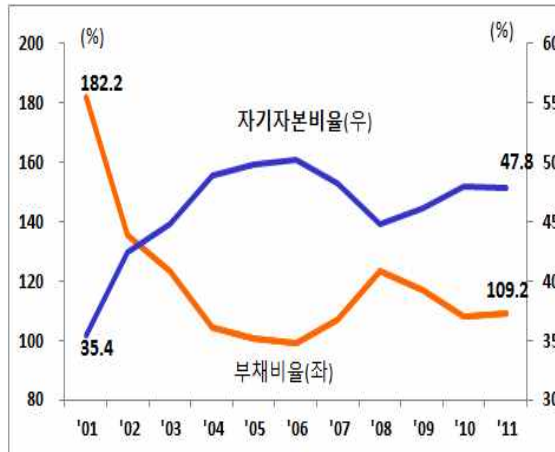
- 해외투자 확대 : 각종 규제와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국내 투자여건 악화로 해외투자가 확대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2009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1년 256억달러 기록
 - 2011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해외 직접투자금액이 증가하여 단위별 직접투자 규모는 증가
- 위기관리 경영 확산 :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시장의 불안 증가와 경영 성과 부진 등으로 기업의 위기관리 경영이 확산
 - 기업은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 규모를 축소. 2001년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182.2%를 나타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109.2% 기록
 - 반면 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2001년 35.4%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47.8%를 기록함

<해외직접투자 추이 2001~2011>



자료: 수출입은행.
주: 실제 투자기준.

<제조업 재무구조 지표 추이 2001~2011>



자료: 한국은행
주: 1)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100
2)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 (중소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업황부진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설비투자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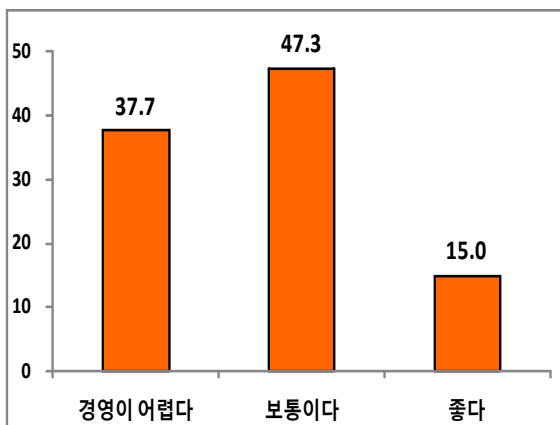
- 중소기업들의 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부진이 심각

- 대한상의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300개사 중 37.7%가 경영 상황이 어렵다고 응답
- 경영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들 중 이미 경영상황이 한계에 이른 기업이 5.3%, 상/하반기가 한계라고 응답한 기업은 54.0%, 내년 이후가 한계라고 응답한 기업이 15.0%에 달함
- 이는 전체 중소기업 중 10곳 중 2곳(20.4%)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안에 경영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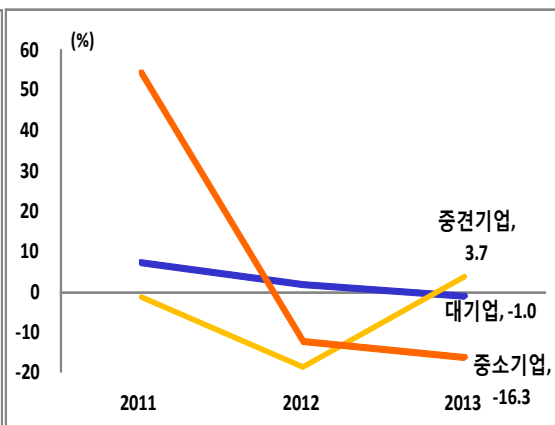
- 중소기업은 2011년 전년대비 54.3%에 달하는 가장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며 2013년에는 -16.3%로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낮아짐
- 2012년부터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의 업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설비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더욱 심화
-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감소가 지속될 경우 생산성 하락 및 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한 경영난 심화 등 악순환 발생 우려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



자료: 대한상의. "경기침체기 중소기업의 경영대응 실태조사", 2013. 2. 19.

<기업규모별 설비투자증가율 추이 2011~2013>



자료: 통계청, 한국정책금융공사.

주: 투자액증가율은 전년대비. 2013년은 계획치

3. 파급 영향과 해소 방안

1) 파급 영향

- 최근 설비투자의 부진세 심화는 고용과 성장여력을 저하시키고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이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
 - 고용과 성장여력 감소 :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의 여력이 감소
 - 만약 2012년에 장기균형 수준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14조 8,409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24만 2,450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²⁾
 - 2012년 4/4분기만 본다면 장기균형 수준의 투자가 이뤄졌을 경우에 6조 1,678억원의 부가가치와 10만 761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되었을 것으로 분석.
 - 경제 회복력 약화 : 설비투자의 부진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고, 고용 및 소득 여건이 악화되어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지게 됨
 -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은 고용 부진, 소득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이어져 침체에서 회복중인 국내 경제의 회복력을 저하
 - 2012년 4/4분기 성장률이 0.3%(전기대비)로 성장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시 향후 성장률 회복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잠재성장률 하락 : 2001년부터 설비투자의 GDP대비 과소투자가 확대되면서 2012년까지 설비투자가 장기균형을 하회함으로써 잠재성장률도 하락
 - 90년대 6.5%수준이었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4.2%로 하락하였고, 2012년 현재 3%대 중반으로 하락세가 지속
 - 과소투자가 나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균형 수준의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가정할 때 약 125조(전체 누적 GDP의 1.1%)가량 부가가치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³⁾
 - 이처럼 설비투자의 둔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자본축적을 저하시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2) 2009년 불변 산업연관표를 사용. 국민계정상 설비투자의 상위 항목인 민간고정자본형성의 취업유발계수(12.7명/10억)를 사용했고, 2012년에도 취업유발계수가 2009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추정.

3) 시계열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2005년 불변 산업연관표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해당 연도의 불변 산업연관표를, 2010년과 2011년은 2009년 불변 산업연관표를 각각 이용하여 추정.

2) 해소 방안

○ (수요 측면)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지원 대책을 강화하여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함

- 충분한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침체된 국내 경기를 조속히 활성화
 - 특히 SOC와 노후인프라 개선, 낙후된 산업단지 개선, 지역도시개발 등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
 - ICT 분야의 인력 양성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 가계부채 해소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가계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 수요 견인
 - 행복기금 추진 등 가계부채 해소 방안을 추진하여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비심리를 회복
 -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예산 집행을 조속히 시행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관련된 산업의 민간 수요 확대를 유도
- 수출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제품 경쟁력 증대를 위한 투자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함
 - 성장성이 높은 신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
 - R&D를 위한 투자 자금을 대해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을 제고

○ (산업 구조 측면)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취약한 서비스 산업 및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를 유도해야 함

-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고 육성 대책을 마련하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일부 제조업에 대한 투자 쏠림을 지양하고 바이오, 신소재, 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계 혜택과 저리융자제공 등 투자지원책을 마련
 -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 및 국제 표준화 지원 및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추진

-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유도
 -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FTA 등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소재 및 부품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설비투자에서 비중이 큰 IT 제조업 투자의 생산 및 투자 연관 효과 제고

○ (기업경영 측면)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함

- 경제민주화 등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정책 여건 조성
 - 기업에 대한 과도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고 재무건전성 평가 등에 있어 과도하게 책정된 부채 비율 등을 현실화
 - 정부는 경기 및 경영 환경 불확실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관된 경제 정책을 유지하여 기업의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
- 경기침체로 위축된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기업가정신 제고
 -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마인드를 확산시켜야 함
 - 또한 창업 단지 조성 및 기술 창업 인프라를 확대 제공하고, 창업 실패시 이를 구제하는 창업 안전망을 확대 구축

최성근 선임연구원 (csk01@hri.co.kr, 02-2072-6223)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 구분 | 2011년 | | | | | 2012년 | | | | | 2013년*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
| 미국 | 1.8 | 0.1 | 2.5 | 1.3 | 4.1 | 2.2 | 2.0 | 1.3 | 3.1 | 0.4 | 1.9 |
| 유로 지역 | 1.4 | 0.8 | 0.2 | 0.1 | -0.4 | -0.6 | -0.1 | -0.2 | -0.1 | -0.6 | -0.3 |
| 일본 | -0.6 | -7.3 | -2.8 | 10.4 | 0.6 | 2.0 | 6.1 | -0.9 | -3.7 | 0.2 | 1.6 |
| 중국 | 9.3 | 9.7 | 9.5 | 9.1 | 8.9 | 7.8 | 8.1 | 7.6 | 7.4 | 7.9 | 8.0 |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 구분 | 구분 | 2011년말 | 2012년 | | 2013년 | | 전주비 |
|----|------------------|---------|---------|---------|---------|---------|-----------|
| | | | 6월말 | 12월말 | 4월 12일 | 4월 18일 | |
| 해외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 1.88 | 1.65 | 1.70 | 1.73 | 1.69 | -0.04%p |
| | 엔/달러 | 77.66 | 79.37 | 85.86 | 99.72 | 98.13 | -1.59¥ |
| | 달러/유로 | 1.2955 | 1.2437 | 1.3222 | 1.3110 | 1.3035 | -0.0075\$ |
| | 다우존스지수(p) | 12,218 | 12,880 | 12,938 | 14,865 | 14,537 | -328p |
| | 닛케이지수(p) | 8,455 | 9,007 | 10,395 | 13,485 | 13,220 | -265p |
| 국내 | 국고채 3년물 금리(%) | 3.34 | 3.30 | 2.82 | 2.67 | 2.59 | -0.08%p |
| | 원/달러(원) | 1,151.8 | 1,145.4 | 1,070.6 | 1,129.1 | 1,124.0 | -5.1원 |
| | 코스피지수(p) | 1,825.7 | 1,854.0 | 1,997.1 | 1,924.2 | 1,900.1 | -24.1p |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 구분 | 구분 | 2011년말 | 2012년 | | 2013년 | | 전주비 |
|---------|-------|--------|--------|--------|--------|--------|---------|
| | | | 6월말 | 12월말 | 4월 12일 | 4월 18일 | |
| 국제 유가 | WTI | 99.22 | 84.86 | 90.89 | 91.22 | 88.01 | -3.21\$ |
| | Dubai | 104.89 | 92.89 | 107.99 | 101.64 | 96.71 | -4.93\$ |
| CRB선물지수 | | 305.30 | 284.19 | 294.78 | 287.21 | 282.90 | -4.31p |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구 분 | | 2011 | | | 2012 | | | 2013(E)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국민계정 | 경제성장률 (%) | 3.9 | 3.5 | 3.7 | 2.6 | 1.5 | 2.0 | 3.1 |
| | 민간소비 (%) | 3.1 | 1.7 | 2.4 | 1.2 | 2.2 | 1.7 | 2.5 |
| | 건설투자 (%) | -7.0 | -2.6 | -4.7 | -1.9 | -2.4 | -2.2 | 2.2 |
| | 설비투자 (%) | 9.0 | -1.3 | 3.6 | 2.3 | -6.1 | -1.9 | 4.8 |
| 대외거래 | 경상수지 (억 달러) | 81 | 184 | 265 | 138 | 295 | 431 | 285 |
| | 무역수지 (억 달러) | 153 | 155 | 308 | 109 | 174 | 283 | 257 |
| | 수출 (억 달러) | 2,736 | 2,816 | 5,552 | 2,750 | 2,729 | 5,479 | 5,786 |
| | | (증가율, %) | 23.6 | 14.9 | 19.0 | 0.5 | -3.1 | -1.3 |
| | 수입 (억 달러) | 2,582 | 2,662 | 5,244 | 2,641 | 2,555 | 5,196 | 5,529 |
| | | (증가율, %) | 26.7 | 20.2 | 23.3 | 2.3 | -4.0 | -0.9 |
| 소비자물가 (평균, %) | | 3.9 | 4.1 | 4.0 | 2.7 | 1.7 | 2.2 | 2.5 |
| 실업률 (평균, %) | | 3.8 | 3.0 | 3.4 | 3.6 | 2.9 | 3.2 | 3.3 |
| 원/달러 환율 (평균, 원) | | 1,102 | 1,114 | 1,108 | 1,142 | 1,112 | 1,127 | 1,060 |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